

주간 해외에너지정책 동향

Issue 32 / 2007.10.10

□ 아시아 중유 가격 급등

- 싱가포르 시장에서 거래되는 180-CST 가격이 두바이 유가 강세로 최고치를 기록하였음.
- 5일 180-CST 인도가격은 톤당 \$413.75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380-CST 가격도 톤당 \$405.50까지 상승함.
- 이는 이란이 중동 최대 병커링 지역인 Fujairah 에 대한 수출을 월 30만 톤에서 18만 톤으로 줄임에 따라 Fujairah는 재고 확보를 위해 아시아와 유럽으로부터의 수입을 늘렸기 때문임.
- 이에 따라 싱가포르에서의 중유 재고는 10월 3일 기준으로 전주대비 1.87백만 배럴 감소하며 11주 만에 최저치인 11.11백만 배럴을 기록하였고 제품가격 상승으로 이어짐.
- ※ CST(centistoke)의 유체의 점성을 나타내는 단위이며, 유종의 점성이 높을수록 발열량은 좋으나 유속이 떨어지기 때문에 유속을 높이고자 타 연료와 혼합해서 사용함. 180-CST와 380-CST 병커유의 주요 점성을 나타냄.

(Bloomberg, 2007.10.5)

NEWS

- 아시아 중유 가격 급등
- 일본의 도시가스 사업 동향
- 유가급등이 세계 정치·경제 불안 원인으로 작용
- 달러 약세로 OPEC 증산 주저
- 중국, '10년 석유비축량 현재의 4배로
- 베네수엘라, 포르투갈과 석유개발 프로젝트 협정 체결
- 가스프롬, 우크라이나 가스 공급 중단 경고
- IEA, 폴란드 가입 승인
- 프랑스 에너지규제위원회, GDF의 망관리 규제 추진
- 프랑스 Alstom Hydro, 베트남에 대규모 수력발전소 건설
- 오스트리아 OMV, 헝가리 MOL 인수 추진
- 타이완, 사우디 전력발전소 건설참여 희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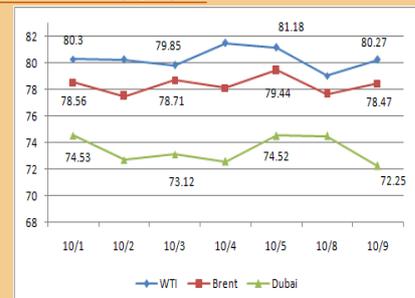
ANALYSIS

- 러시아-카자흐, 카스피해 에너지 수송로 논의
- LNG 거래 동향
- 중국의 가스관 확장 계획

REPORT

- 러시아 다국적기업의 변화

Oil Prices (Spot)



자료 : 한국석유공사



ASIA & AMERICA

□ 일본의 도시가스 사업 동향

- 지난 4월 가스사업 자유화 범위가 연간 가스사용량 10만^m 이상인 수요자로 확대된 결과로 수요자 10,100건, 가스판매량의 59%가 자유화 대상이 됨.
 - 신규참가건수는 '01년도의 20건에서 '06년도에는 162건으로 증가하였고 대규모 공급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1.8%에서 11.7%로 확대됨.
 - 향후 도시가스 사업의 과제는 공급안정과 안보문제이며, 소매자유화 범위의 확대에 관해서는 전력부문의 소매자유화 연기가 결정됨으로써 가스부문에서도 같은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LNG 수요는 도쿄전력의 카리와 원자력발전소의 복구시점이 불투명해졌기 때문에 석유계통 연료와 LNG로 원자력의 부족분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 '02년 8월에는 가동 중인 원자력발전소가 순차적으로 정지되었으므로 도쿄전력의 LNG 소비량은 '01년도 1,593만 톤에서, '02년도 1,696만 톤, '03년도 1,912만 톤으로 증가하였음.
 - 이번에도 당분간 LNG 장기계약으로부터 추가물량 조달을 통해 필요량을 충족시키는 한편, 원자력 발전소 정지기간의 장기화로 스팟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02년에는 도쿄전력의 원자력 1,730만 kW 전부가 정지하였지만, 카리와 원전의 가동정지 용량은 821만 kW에 불과하고 '06년에 호주의 다윈 프로젝트 200만 톤이 추가되어 LNG 장기계약물량이 1,760만 톤으로 확대되는 등 상황변화가 발생함.

(IEEJ, 2007.9)

□ 유가급등이 세계 정치·경제 불안 원인으로 작용

- IHT는 배럴당 \$80을 돌파하는 등 치솟는 석유가격이 전 세계적으로 정



치 및 경제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고 분석하였음.

- 이 신문은 미얀마 민주화 시위가 지난 8월 군사정부의 전격적인 유가 인상으로 촉발된 점을 상기시키면서 미얀마뿐만 아니라 산유국인 이란, 나이지리아 등에서 민생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휘발유, 경유 등 석유제품의 가격 때문에 시위가 발생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하였음.
- 아프리카의 대표적 산유국인 나이지리아에서도 석유시설 근로자들이 지난 6월 배급제를 축소할 경우 석유 생산시설을 폐쇄하겠다고 위협하며 파업에 나서 정부는 결국 배급 축소를 철회하였음.
- 특히 개발도상국에서는 정부가 유가 결정을 시장에 맡기느냐, 아니면 보조금을 지급해 유가를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느냐를 놓고 고심을 하고 있다고 분석하였음.
- 그러나, 전문가들은 정부가 시장가격을 무시하고 정치적 안정을 위해 에너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위험한 행위라고 지적하였음.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2007.10.1)

□ 달러 약세로 OPEC 증산 주저

- 달러 약세가 OPEC으로 하여금 고유가에도 불구하고 증산을 꺼려하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고 석유시장 관계자들이 지적하였음.
- 이들은 OPEC이 11월 1일부터 일일 50만 배럴 증산기로 합의한데 이어 오는 12월 5일 수급 문제를 다시 협의하기 위한 정례 각료회담을 앞두고 있지만, 주요 석유결제 통화인 달러가 유로화에 비해 가치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추가 증산 결정이 내려지기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음.
- 이라크의 석유장관도 최근 달러 가치가 지난 몇 달간 크게 떨어졌기 때문에 OPEC 회원국 다수의 석유 판매수입에 실질적인 타격이 가해졌다고 언급함.

(AP, 2007.10.1)

□ 중국, '10년 석유비축량 현재의 4배로

- 중국은 석유수요의 급증으로 수입비율이 약 50%인 상황이며 에너지부족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석유비축량을 늘릴 계획임.

- 작년부터 가동되기 시작한 비축용 탱크에 석유 저장을 시작할 것이며, '10년 석유비축량은 1,200만 톤으로 현 수준의 4배정도가 될 것임.
- 중국 절강성과 산둥성, 요녕성 등에서 비축기지 건설 및 정비가 진행 중이며, 이미 2개소가 가동되고 있음.
- 현재 200~300만 톤의 비축량이 '10년에 1,200만 톤에 이르면 중국의 1개월분 수입량에 상당하는 석유저장이 가능하게 됨.

(日本經濟新聞, 2007.10.5)

□ 베네수엘라, 포르투갈과 석유개발 프로젝트 협정 체결

- 베네수엘라와 포르투갈 양국은 오리노코 유전의 Boyaca 6블록을 공동 개발하겠다고 발표함.
- 석유와 가스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동 프로젝트는 베네수엘라의 PDVSA와 포르투갈의 Galp Energy를 통해 이루어질 예정임.
- 베네수엘라는 포르투갈 총 수요량의 30%를 충족할 수 있는 약 96,000 b/d를 30년간 수출할 계획임.
- Boyaca 6블록에는 500억 배럴의 석유가 매장되어 있으며 이 중 120억 배럴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이외에도, 양국은 LNG 공동개발을 추진할 예정으로 베네수엘라는 포르투갈의 저장설비를 이용하여 유럽시장 진출 확대를 꾀함.

(Europa Press, 2007.10.3)



EUROPE, MIDDLE EAST & AFRICA

□ 가스프롬, 우크라이나 가스 공급 중단 경고

- 가스프롬은 우크라이나가 지난 9개월간의 \$13억 채무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음.
- 올해 초에도 가스프롬은 급작스럽게 우크라이나에 대해 가스 공급을 중단한 바 있음.
 - 우크라이나는 자국의 수요를 먼저 충족시키기 위해 유럽으로 수송되는 가스를 이용하였고, 이로 인해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독일은 가스 부족 상황이 발생하였음.
 - 가스 수요가 급증하는 동절기가 다가오고 있어 EU는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자원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EU의 비판에 대해 가스프롬은 독립국가에 시장가격의 1/5인 할인가격에 가스를 공급하는 지속적인 보조를 중단하겠다는 의견을 내세워왔음.
 - ※ 올해 초 러시아-우크라이나간 가스분쟁에서 가스프롬은 1,000 m³당 \$230을 요구해왔으나, 우크라이나는 \$130을 지불해왔음.
- 한편 현 상황에 대해 가스프롬이 서유럽 수송 파이프라인을 안전하게 통제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분석이 제기됨.

(Timesonline, 2007.10.3)

□ IEA, 폴란드 가입 승인

- IEA는 폴란드의 IEA 회원국 가입을 승인하였음.
 - IEA 가입은 러시아에 대한 가스 및 석유 의존도를 줄이고자 하는 폴란드 정부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폴란드는 '94년부터 IEA 가입을 희망해 왔음.
 - 이번 승인은 폴란드의 지리적 위치가 중·동부 유럽에서 IEA의 입지와 에너지 안보 강화에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 결정된 것임.



※ 중유럽 최대의 에너지 소비 및 생산국인 폴란드는 '96년, '04년에 각각 OECD와 EU에 가입하였으며, OECD 회원국 중 석탄 생산 3위를 기록함.

- '90년대 이후 폴란드는 에너지 부문 개혁 및 에너지 소비패턴 개선을 시도해왔음.
- IEA 및 EU의 에너지 목표에 부합하는 에너지공급원 다변화 및 교역 강화와 에너지안보, 시장체제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음.

(IEA, 2007.10.3)

□ 프랑스 에너지규제위원회, GDF의 망관리 규제 추진

- 프랑스의 에너지규제위원회(CRE)는 전력 및 가스망에 대한 접근과 이용을 담당하는 기관인 분쟁해결및제재위원회(Cordis)가 GDF의 독점적인 망관리를 제재하도록 명령함.
- GDF가 관리하고 있는 가스 배관망의 길이는 185,000km이며, '08년부터 동 배관망은 관리와 소유가 분리되어야 함.
- 지난 7월 1일에 실시된 에너지시장개방으로 GDF는 타 경쟁업체와 배관망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배타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 CRE에 따르면 배관망에 대한 평가 및 고객리스트는 배관망 이용에 필요한 정보이며, 전력 및 가스회사인 Poweo는 이러한 정보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며 지난 7월 26일에 망정보이용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함.
- 이번 Cordis 개입은 '06년 12월 7일 에너지관련법에 의거하여 창설된 이후 세 번째임.

(LesEchos, 2007.10.3)

□ 프랑스 Alstom Hydro, 베트남에 대규모 수력발전소 건설

- Alstom Hydro는 베트남 하노이(Hanoi)의 북서쪽에 위치한 Son La 수력발전소에 필요한 설비들을 베트남전력공사(EVN)에 1억 9,000만 유로에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함.



- 동 발전소의 예상 발전규모는 2,400MW로 동남아시아 최대 규모이며, 계약은 양국의 수상이 참여한 가운데 이루어짐.
- Alstom Hydro는 Alstom과 Bouygues의 합작회사로 총 설치규모는 400GW를 초과하는데, 이는 세계 수력의 25% 이상을 차지함.
- Alstom Hydro는 동 수력발전소의 구상 및 종합연구, 제조 뿐 아니라 각각 400MW급의 Francis 터빈 6기와 교류발전기, 부속설비를 양도할 예정임.
- 동 발전소의 시험가동은 '10~'12년 사이에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며, 연간 약 100억 kWh의 전력을 생산하여 베트남의 전력공급부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Europétrole, 2007.10.4)

□ 오스트리아 OMV, 헝가리 MOL 인수 추진

- 오스트리아 석유회사 OMV는 지난 9월 25일, 헝가리 석유가스기업 MOL의 지분을 주당 128 유로로 총 14억 유로에 매입하여 지분 20.2%를 확보하였으며, MOL 인수를 통해 동유럽 최대 규모의 기업 창설을 추진 중임.
- 헝가리 정부 및 MOL은 OMV의 이러한 인수 계획을 반대하고 있으며, 헝가리 수상은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오스트리아의 적대적 인수를 막겠다고 밝힘.
- 한편, OMV의 지분 31%를 보유하고 있는 오스트리아 정부가 이번 인수합병 계획에 개입했을 것이라고 헝가리 정부는 예측함.
- 이와 같은 오스트리아의 인수계획은 유럽의 가스안보와 관련이 있는데, OMV와 MOL은 각자 유럽에서 주도적 역할 수행을 희망하고 있음.
- 두 기업 모두 Nabucco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데, 동 프로젝트는 러시아의 유럽시장 장악을 저지하기 위해 필수적임.
- OMV의 MOL 주식매입 문제는 Nabucco 프로젝트 실행에 차질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됨.

(Le Monde, 2007.10.1)



□ 타이완, 사우디 전력발전소 건설참여 희망

- 사우디아라비아의 발전소와 담수화 플랜트 건설을 위한 입찰에 타이완 컨소시엄이 참여를 희망하고 있음.
 - 동 프로젝트는 석유를 이용한 850~1,100MW 발전소 건설과 일일 12억 리터 담수화 플랜트 건설을 포함하고 있음.
 - 여기에는 한국전력공사와 일본의 도시바도 관심을 보이고 있음.
- '15년까지 전력생산을 60% 증가시키기 위하여 사우디전력공사는 지난 6월 \$510억 상당의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 사우디는 빠른 경제성장으로 인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원활한 전력공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사우디는 경제성장의 원천인 석유판매수입이 증가한 가운데 연평균 7%의 전력수요 증가를 기록하고 있으며 수도 리야드에서는 지난 2년간 10%의 전력수요 성장을 나타내었음.

(Al-Jazeera, 2007.10.2)



1. 러시아-카자흐, 카스피해 에너지 수송로 논의

□ 개요

- 10월 4일,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두 정상은 노보시비르스크에서 회담을 갖고 투르크메니스탄과 카자흐스탄의 가스 및 석유 수출을 위한 러시아 통과 신규 수송로에 대해 논의함.

□ 세부내용

- 두 정상 간의 논의는 지난 5월,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간에 합의되었던 신규 가스 수송로에 관한 후속 논의였음.
 - 카자흐 대통령은 이와 관련하여 현재 카자흐스탄은 카스피해 연안에서 이미 공사를 진행 중이며 이 공사가 '카스피해 에너지 수송 및 운송로' 프로젝트의 핵심시설이 될 것이라고 언급함.
 - 또한 카자흐 대통령은 '카스피해 에너지 수송 및 운송로' 프로젝트의 1단계 목표가 러시아,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을 연결하여 남으로는 페르시아만에 연결하고 북으로는 발틱해에 연결하는 것이라고 언급함.
 - 이 프로젝트를 위해 철도와 고속도로, 전력망, 가스 및 석유 수송관을 망라하는 최첨단 시스템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힘.
 - 남북 방향으로의 '카스피해 에너지 수송 및 운송로' 프로젝트는 북쪽으로 EU에 가스 및 석유를 수출할 뿐만 아니라 남쪽으로는 이란을 거쳐 페르시아만으로 연결되어 아시아 국가, 특히 인도에도 에너지를 수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이 밖에 카스피해를 흑해와 아조프해로 연결하는 새로운 운하 건설의 가능성이 제안되었으며 카스피해의 분할문제 또한 상의되었음.
 - 카스피해 분할 문제는 이번 달 이란에서 개최예정인 카스피해 연안국 정상회담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임.
 - ※ 카스피해 분할 문제에 대해서는 러시아,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이 공동보



조를 취해 해안선에 따른 분할을 주장해왔으나 이란과 투르크메니스탄은 5 등분하기를 주장해 왔음.

□ 시사점

- ‘카스피해 에너지 수송 및 운송로’ 프로젝트는 중앙아시아의 가스 및 석유를 유럽으로 수송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지만 페르시아 만으로의 수송관이 완성될 경우 아시아로의 판매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중앙아시아 매장지 개발의 사업성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됨.
- ‘카스피해 에너지 수송 및 운송로’ 프로젝트는 에너지 수송 외에도 주요 교통 인프라에 대한 계획도 담고 있어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세계경제로의 통합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임.

(RFE/RL, 2007.10.5)

2. LNG 거래 동향

□ 개요

- 천연가스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향후 공급시장의 변화와 함께 주요 소비국의 수요변화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음.
 - ‘08~’10년 사이에 사할린II를 시작으로 인도네시아와 호주, 카타르에서 여러 신규 프로젝트가 계속해서 추진될 예정임.
 - 미국의 ‘06년 천연가스 소비는 ‘00년 대비 6.5% 감소하였으나, 일본에서는 산업부문의 수요증가율이 높고 원자력발전소의 설비 가동률 저하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세부내용

- 천연가스 가격 현황
 - 천연가스의 지역별 수요증감이 상이한 원인으로서는 가격결정 방식의 차



이가 지적되고 있으며, 아태지역 LNG가격은 상승하였지만 상승폭은 원유보다도 낮게 억제되고 있음.

- 미국 천연가스 가격은 Henry Hub 등 국내거래소의 수급에 의해 결정되므로 생산지인 멕시코 만에 허리케인이 발생하여 생산이나 수송설비에 피해가 생기면 가격이 급등하게 됨.

○ LNG 무역 개관

- '06년 말에는 수입국이 17개국, 수출국이 13개국으로 확대되었으며, '07년 5월에 적도기니가 출하를 개시하였고 '07년 중에는 노르웨이가, '08년에는 러시아도 LNG 생산을 개시할 예정임.
- 카타르가 '10년 말까지 연간 5,000만 톤의 액화능력을 추가로 갖추게 되면 생산규모가 총 7,720만 톤으로 확대될 전망이며, 중동을 사이에 두고 나뉘어져 있는 아태지역과 대서양 두 시장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
- 일본의 LNG 수입량이 '80년대에는 전세계의 70%를 차지하였으나, '95년 63%, '00년 53%, '05년에는 40%로 비중이 줄어들고 있음(수입량은 '00년 5,416만에서 '06년 6,353만 톤으로 17% 증가).
- 한국가스공사는 '04년 8월 입찰방식에 의한 장기계약교섭을 개시했으며, 사할린Ⅱ나 말레이시아Ⅲ 등과 체결된 계약가격은 \$3.8~4.2/MMBtu(기준 원유가격 \$40/배럴)으로 기존계약에 비하면 35~40%정도 낮은 수준임.
- '07년 공급을 개시한 카타르 RasGas 프로젝트에서 한국은 연간 210만 톤의 LNG 계약을 \$10~11/MMBtu 수준에서 체결함.
- 대만의 CPC는 '04년 6월 카타르 RasGasⅡ에서 LNG를 구입하여 대만전력에 공급하며 가격은 5.69 대만달러(NT\$)/m³이며, '03년 대만 전력용 평균 가스가격 8.33대만 달러(NT\$)/m³에 비해 30%정도 낮은 수준임.

○ LNG 거래 동향

- 세계적인 수요확대로 시장에서 잉여 LNG가 사라졌으며, 아태시장에서는 주요 공급국인 인도네시아의 공급감소와 계약갱신 및 개정 문제가



부상하였음.

- 일본에서 사용되는 약 1,200만 톤에 대한 계약기간이 '10~'11년에 만료 되는데, 인도네시아는 국내공급을 우선시하여 계약량 축소방침을 시사하고 있으며 계약갱신 및 개정은 미결정 상태임(6월 28일 기준).
- 최근까지의 LNG거래는 구매자가 컨소시엄을 형성하여 구입계약을 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는데, 시장자유화의 진전으로 컨소시엄 구성원 간의 경쟁관계가 보다 명확해지고 있음.
- 현재는 개별조달방식이 일반적이며 기업의 필요에 따른 기동력 있는 협상·조달이 가능해졌지만, 소규모 구매자의 구매력 저하가 우려되고 있음.

□ 시사점

- 유럽 및 아시아에 판매가 가능한 중동국가에서 수출물량이 증가하여 LNG시장의 국제화 및 거래형태가 점차 다양화될 전망이다.
- LNG 시장의 상황변화를 주시하며 중장기 수급안정과 동절기 피크물량 조달 및 수요 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처하는 전략수립이 요구됨.

(IEEJ, 2007.8.21)

3. 중국의 가스관 확장 계획

□ 개요

- 중국 국영석유회사 CNPC는 중앙아시아와 국내 가스전을 연결하는 첫 단계로 제 2 서기동수(West-East Pipeline, WEP-2)의 세부계획을 마침.

□ 세부내용

- 중국의 가스관 확장 배경
 - 8월 키르기스스탄에서 열린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담 후 WEP-2



의 계획이 발표됨.

- WEP-2의 빠른 진행은 중국의 가스 공급 부족이 확대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임.
- 현재 중국의 천연가스 생산량은 현재 600억 m³/yr에서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향후 수요량에 미치지 못할 전망이다.
- '10년 수요량은 1,000억 m³/yr로 약 200억 m³/yr이 부족할 것으로 보임.

중국의 주요 가스관 루트



○ 중앙아시아 연결 가스관 계획

- 중앙아시아를 지나는 두개의 신규 파이프라인은 카자흐스탄 Chimkent에서 서로 만나며 Khorgos 지역을 통과하여 중국에 가스를 공급할 예정임.
 - 건설 첫 단계는 투르크메니스탄 또는 우즈베키스탄(잠정) 가스 수송을 위해 두 국가에서 Khorgos를 연결하는 300억 m³/yr 파이프라인 건설임.
 - 두 번째 단계는 Beyneu-Bozoi-Kyzylorda를 연결하고 Chimkent에 이르는 가스관 건설과 Chimkent-Khorgos 라인을 400억 m³/yr으로 확장하는 것임.
- ※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은 7월 베이징 방문 중에 중국과 300억 m³/yr의 30년 장기가스 공급 계약에 서명하였음. 또한 SCO 정상회담 후에 카자흐스탄과 가스관 루트 협정을 체결함.



○ 제2 서기동수 가스관(WEP-2) 계획

- WEP-2는 Khorgos 지역에서 기존 파이프라인 루트를 따라 중부 Gansu 성을 연결하여 남동 Jiangxi성의 Nachang으로 향하며 Jiangxi에서 갈라져 Shanghai와 Guangzhou를 연결함.
- 총 길이 4,900km, 용량 300억 m³/yr으로 '10년 가동될 예정이며, 비용은 \$106~133억이 소요될 전망으로 '02년 완공된 WEP-1의 두 배 규모임.

□ 시사점

- 중국은 러시아와 천연가스 구매계약에 있어서 가격에 대한 의견불일치로 차질을 겪은바 있으며, 최근 LNG 가격 상승으로 인해 천연가스 확보에 지장을 받고 있음.
- 이에 따라 중국은 중앙아시아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 안정적인 천연가스 확보에 주력하고 있음.

(Argus Asia Gas & Power 2007.9)



1. 러시아 다국적기업의 변화

□ 개요

- 최근 가스프롬, Rosneft, Lukoil과 같은 러시아 기업들은 공격적으로 사업 확장을 추진해왔으며, 사회주의체제하에서의 국영기업 혹은 복합적 사업이 혼재된 기업구조로부터 보다 효율적이고 이윤이 높은 기업구조로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음.

□ 세부내용

- 러시아의 거대 다국적기업들은 최근 미국과 유럽 및 인근 국가들에 대한 활발한 기업인수 활동으로 주목을 받아 왔으며 향후 아시아와 남미,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사업 확대를 계획하고 있음.
 - 이러한 대외확장정책은 러시아 기업에게 선진기술이나 경영기법, 시장에 대한 접근을 가능케 함.
 - '06년 중 국제시장에서 가스프롬을 포함한 러시아 기업들의 인수합병 활동은 \$150억(10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됨.

러시아 주요 기업 현황

기업	부문	종원원 수	2006 수입
Lukoil	석유, 가스	148,500	67,684
Gazprom	석유, 가스	432,000	64,100
Rosneft	에너지	70,000	33,099
Severstal	Metals and Mining	100,000	12,423
Norlisk Nickel	Metals and Mining	96,193	11,550
Evraz Group	Metals and Mining	110,000	8,292
MTS	통신	24,125	6,384
UC Rusal	Metals and Mining	100,000	6,650
Vimpelcom	통신	21,300	4,870



- 구소련지역 국가와 기타 신흥개발국가에서의 사업 확장에는 별 문제가 없었으나 경험부족, 정치적 고려나 기업이미지 문제로 선진국시장 진입에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 왔음.
 - '06.1~'07.1 기간 중 러시아기업들은 13개의 대형 인수합병에 실패하였으며 동 사업 투자소요액의 총 합계는 \$502억이고 이 중 5건이 가스프롬, 2건이 Lukoil이었음.
- 선진국 시장에서 직면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몇몇 주요 서방기업들과의 협력적 사업방식의 채택은 세계 시장에서 러시아 기업들의 신뢰성 있는 사업협력자로서의 위상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었음.
 - 가스프롬은 '07년 초 TNK-BP 합작사업 지분을 BP로부터 인수하였으나, 비슷한 시점에 가스프롬과 BP가 장기적인 연대관계를 유지하고 러시아 및 외국에서 진행할 사업에 대해 공동투자를하기로 양해각서를 체결함.
 - 미국의 ConocoPhillips는 '04년 Lukoil의 지분 7.6%를 취득하고 이후 이를 20%까지 증대하여 러시아의 주요 유·가스전에 대한 개발권을 얻게 되었으며, Lukoil은 선진기술과 경영기법 뿐 아니라 대형 개발사업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확보함.
- 러시아 거대기업들은 점진적으로 내부 의사결정구조 및 과정의 개선, 지속가능발전 경영원칙의 도입 등을 통한 거버넌스 구조의 개혁을 추진하여 왔음.
 - 이는 서방국가 자본시장에서 상장을 통해 금융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요건이며 외국기업의 인수합병 활동 또한 이러한 변화를 촉진하는 요인임.
 - 러시아 기업들은 서구형 지배구조 및 고용정책의 확대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스톡옵션과 성과급 같은 인센티브제도 이사회 및 사외이사제도, 내부감사,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 등의 경영·관리방식을 도입하고 있음.
 - 그러나 S&P의 '06년 보고서에 의하면 러시아기업들의 경영투명성은 IPO나 유로본드의 판매에 필요한 기본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러시아의 민간기업의 경우 기업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나 가스프롬과 같은 국영기업의 경우 그 변화속도가 상대적으로 미미함.
- Lukoil을 포함한 러시아기업들은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해 핵심 사업을 제외한 사업부문을 분리하려는 노력을 해왔으나 가스프롬의 경우 언론 등의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음.
- 그러나 러시아 기업은 특히 서방세계에서 효율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의사소통 능력의 부족으로 인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음.
- 러시아의 Severstal사는 Arcelor사의 인수합병 경쟁에서 적극적으로 이해관계자에 대한 사업계획을 제공하는 노력을 한 인도의 철강회사 Mittal에 패한 바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러시아기업 경영자들은 기업의 장기적 경쟁력이 기업의 운영이나 지배구조, 재무 측면에서 세계 일류기업의 관행보다 우월하여야 유지가능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음.

□ 시사점

- 국제적으로 러시아 에너지기업들의 기업인수합병을 통한 사업 확대가 진행되고 있을 뿐 아니라 국내적으로도 다양한 사업부문에 대한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어 우리에게 주요 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기회를 제공함.
- 따라서 러시아의 풍부한 에너지자원산업에 대한 진입을 위해서는 러시아 에너지산업의 변화과정과 경제 및 제도적 환경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함.
- 또한 러시아 기업과의 협력 방식에 의한 러시아자원 및 시장 개발을 위한 노력이 요구됨.

(EIU, 2007.6)